

서울 강남지역 경제공간의 재편성 : 생산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손승호(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sonsh@korea.ac.kr)

서울은 지난 30여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 및 산업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로부터 파생된 도심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의 다핵화를 도모하고자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강남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착수함으로써 도심에 집중된 기능을 한강이남으로 분산시키기 시작하였다.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는 도시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던 제조업과 도소매업, 그리고 건설업 등의 비중이 약화된 반면, 도시경제의 진보와 더불어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비자서비스(consumer service) 부문의 성장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보다도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 부문의 성장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업간의 긴밀한 연계관계를 형성시켜주는 통신업을 비롯하여 금융 및 보험업체수의 증가, 그리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는 서울시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차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패턴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에서의 서비스업 입지는 도심을 벗어나 부도심에서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입지변화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을 거쳐 온 강남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강남지역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토지이용의 변화과정을 경험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대기업의 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의 입지특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시가지(도시내신도시)라 할 수 있으며, 최근 경제공간으로서의 강남지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생산기능을 담당하던 제조업부문이 쇠퇴하는 동시에 서비스업부문이 급속히 성장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전통적인 소비자서비스보다는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 근대적인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상술한 관점에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포함하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공간의 재편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상기한 3개의 구에 자리한 생산자서비스업 부문의 입지변화를 1996년과 2001년의 두 시기에 대하여 각 행정동별 사업체수와 고용자수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생산자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업종은 다양하게 표시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업중분류에 기초하여 1996년과 2001년 사이에 강남지역에서 증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금융업(K65)·보험업(K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K67)·부동산업(L70)·임대업(L71)·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M72)·연구 및 개발업(M7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4)·사업지원 서비스업(M75)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기한 산업의 입지변화를 고찰한 결과, 2001년 들어 강남지역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함께 입지패턴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강남구 역삼1동과 서초구 서초3동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금융업 종사자수나 보험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분포에서는 2001년 들어 중심이 되는 핵으로의 집중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는 중심-주변지역의 개념으로 설명할

경우, 대상지역의 중앙부에 강력한 단일 중심지가 형성되고 중앙부로부터 이격된 지역에서 부차적인 중심지가 형성됨으로써 이들 중심지 이외에 자리한 주변지역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나타난 경제공간의 변화는 잠실지구의 주변지역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논현1동·서초2동·삼성2동 등 역삼1동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대상지역인 강남지역의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잠실지구는 1996년도만 해도 여러 산업부문에 걸쳐 비교적 많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입지가 확인되었지만, 2001년에 들어서는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경제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다. 이는 역삼1동을 중심으로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계에 자리한 지역에서의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핵심지역이 형성되어 감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강남지역 생산자서비스업의 입지분포의 변화를 통해 보면, 강남지역 경제활동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역삼1동의 성장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났다. 1996년만 해도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의 분포에서 역삼1동이 강남지역에서 수위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역삼1동은 2001년 들어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사업부문 가운데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종사자수에서만 수위를 차지하고 못하였을 뿐 나머지 부문에서는 수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에서 역삼1동과 차하위지역과의 격차가 1996년에 비해 더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삼1동은 강남지역 생산자서비스업 입지의 핵심지역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역삼1동과 인접하고 있는 서초2동·논현1동·서초3동·삼성1동 등지에서도 생산자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으로부터,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강남지역에서도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함은 물론 산업 입지의 패턴이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공간이 재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강남지역의 경제공간은 강남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중앙부에 자리하고 도로교통 또는 지하철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접근도가 양호한 역삼1동이 핵심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핵심지역과 그에 인접한 지역으로 생산자서비스업이 집중하는 반면, 핵심지역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생산자서비스업의 집중도가 감소함으로써 경제공간의 차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